

『진별휘고속편』의 인물 奇譚錄으로서의 성격

韓榮奎*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진별』의 편성방식과 인물 기록의 성격 |
| II. 『진별』의 편찬 시기와 시대 의식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최근에 새로 발견된 『震閥彙攷續編』이라는 문헌은 『호산외기』 『이향견문록』 등 19세기의 인물 기록 모음집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면모를 지녔다. 『진별휘고속편』에는 1천여 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상층의 인물부터 중인층과 서얼층, 그리고 여성과 기층민이 포괄적으로 집성되어 있다. 필기·야담·유서 등의 방대한 문헌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다채로운 인물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인물 집성이라 칭할 만하다. 그러나 『진별휘고속편』은 편자, 편찬시기, 편찬의 의도와 세부 원칙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데다, 실제의 인물 편성도 체계적이지 못한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진별휘고속편』은 『진휘속고』의 통합 재구성본으로서 이전의 인물지와 구분되는 새로운 특성을 지녔다. 첫째, 계층적·시대적 국한성을 넘어서는 통합적이며 통사적인 인물 기록 집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편성이 정교하거나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진별휘고속편』은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을 일국적 시야에서 分門하고 그에 따라 類聚한 결과물이다. 중인층 중심의 『호산외기』 『이향견문록』, 서얼 만을 대상으로 한 『구사』 등과는 현격히 다른 측면이다. 그 점에서 『진별휘고속편』은 저본 『진휘속고』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재편성 과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일국적 규모의 인물 편성을 보여준다. 둘째, 외형적으로 상하층 통합적이면서도 실제 내용에서는 서얼·중인·여성·常賤 등에 특별히 비중을 두어 인물을 편차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했다는 점이다. 이는 역동적 민간 기원의 기담의 중시라는 조선 왕조 해체기의 시대성과 연관되는 문제이다. 셋째, 정사 및 관찬서 뿐 아니라 필기·야담·한문단편소설 등을 대거 활용하여 비역사적 성격의 인물들까지 포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인물 奇譚의 흥미성을 보다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인물 집성에 있어서 『진벌휘고속편』 편성이 보여주는 이러한 탈계층적 면모는 미증유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918년에 편집된 『일사유사』가 여전히 전근대적 가치와 분류 체계에 매몰되어 장지연 당대의 시대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진벌휘고속편』은 왕조 해체기 민간의 역동성이라는 시대상의 한 부면을 담아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진벌』에는 1871년 이후부터 애국계몽기 사이의 왕조 해체기의 시대 의식이 담겼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 『진벌』이 “당대 이념과 가치, 당대의 질서 안이 아닌 밖의 인물 정보를 담아내려는 자체는 시대적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은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진벌』이 집성한 민간 인물 기담의 역동성은 19세기의 시정성과 연결되면서도, 보다 일국적이고 계층통합적인 시각을 보인다는 점에서 거리가 있다. 『진벌』에는 왕조적 시대 의식보다는 조선 왕조 해체기 또는 근대 전환기의 시대 의식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거기에 인물 기담록으로서의 흥미성을 중시하는 편집 의도를 지녔기 때문에, 필기·야담·한문단편 등의 다양한 장르가 포용되고, 계층적으로 상층의 인물보다는 서얼·중서층·여성 및 기층의 인물에 비중이 보다 두어졌던 것이다.

주제어 : 『震閥彙攷續編』, 『진휘속고』, 인물지, 奇譚, 인물 기담록, 19세기, 근대전환기

I. 문제의 제기

최근 『진취속고』라는 19세기의 독특한 인물지가 『스스로 역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판되었다.¹⁾ 이 문헌은 본래 조희룡의 『호산외기』(1854), 유재건의 『이향견문록』(1862), 이경민의 『희조일사』(1864), 장지연의 『일사유사』(1918)과 함께 『이조후기 여향문학총서』 제9책에 영인되어 일찍부터 알려진 바 있다. 즉 이조후기 여향인의 인물 기록을 대표하는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진취속고』의 텍스트가 작은 글씨의 행초서로 쓰여 있고, 또 여타의 문헌에 비하여 덜 완성된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인물 정보의 중요성에 비하여 접근과 해석이 용이치 않았다. 그런데 책 이름 그대로 『스스로 역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로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되어, 역사의 광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속에는 홍명희의 역사소설 『임꺽정』에 나오는 갖바치 이야기도 실려 있고, 또 전통적인 역사서에 볼 수 없었던 개성적이고 특이한 인물들이 다수 실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문헌의 번역본을 꼼꼼히 읽어 보더라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누가, 어떤 의도를 지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인물 기록을 집성한 것일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답변은 이렇었다. 즉 문헌에 밝은 경아전 서리가 중인층의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드러내어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한 의도에서 이 『진취속고』를 편집했다고 해석했다.²⁾ 즉 중인 서리층 관련 인물 기록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무엇보다 『진취속고』에는 흥세대·고시언 같은 중서층 인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향견문록』에서 안견 등 중서층의 인물 14인의 기록을 작성하면서, 『진취속고』를 인용하고 있어서, 당연히 중인 문화권에서 산출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진취속고』의 역주 출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은진이 해제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이 문헌은 다수의 중서층 인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꼭 중서층의 계층 의식을 현양하려는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즉 그 대상 인물이 상하층을 두루 아우르고, 또 삼국·고려시대 인물까지 일부 들어있다는 점에서, 계층과 시대

1) 김혈조 외 역, 『스스로 역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 : (역주) 진취속고』, 영남대학교출판부, 2018.

2) 강명관, 「『진취속고』 해제」, 『이조후기 여향문학총서』 9, 여강출판사, 1991, 4-5면.

국한을 넘어 매우 일국적 시야, 통시적 안목에서 인물 기록을 집성해 놓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진휘속고』는 기존의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호산외기』 『이향건문록』과는 다른 층위에서 논의될 성질의 문헌이라는 사실이 차츰 설득력을 넓혀 가고 있다.

그런데 『진휘속고』의 역주가 진행되는 동안 『震閩彙攷續編』이라는 낯설고 긴 이름의 또 하나의 관련 문헌이 출현했다.³⁾ 이 『진벌』의 출현으로 『진휘속고』가 지닌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기도 했다.⁴⁾ 『진벌』의 소개 이후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진벌』을 동시대의 여러 인물지와 비교 고찰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고,⁵⁾ 『진벌』의 50여 편 중의 한 압권으로, 88인의 도가적 인물을 집성한 [道流] 편을 상세하게 분석한 논문도 제출되었다.⁶⁾ 임완혁은 특히 『진벌』이 기존의 두 『진휘속고』를 재편성하고, 새로운 인물 기록을 대거 인용 휘합한 것을 두고 “전대의 문헌을 인용하여 완성하였으나, 편자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눈에 띈다. 소극적인 자료 정리를 넘어 편자의 의도가 반영된 ‘제2의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⁷⁾

최근의 이러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진벌』이라는 인물지의 성격과 특성은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듯하다. 진재교는 『진벌』을 다른 인물지와 비교하면서 이 문헌의 특이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각 항목은 편찬자의 관심에 따라 선후로 배열되어 있지만, 기존의 가치 질서에서 제시되기 어려운 표제어를 제시한 것은 문제적이다. [奸巧] [富人] [亂逆] [盜賊] 등의 (편명) 표제어가 그것이다. 이들 표제어는 당대 가치질서와 엇나가지만, 시대상과 그 이면의 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의미망을

3) 한영규, 「잡록형 인물지 『진벌휘고속편』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55, 한민족문화학회, 2016, 131~164면; 최수은, 「신발굴 인물지 『진벌휘고속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논의의 효율을 위해 『진벌휘고속편』은 『진벌』로, 번역 출간된 육당본 『진휘속고』는 『진휘속고』(A)로, 『장지연전서』 속에 수록된 장지연본 『진휘속고』는 『진휘속고』(B)로 칭하기로 한다.

4) 정은진, 「고려대 육당문고본 『진휘속고』 고찰」, 『태동고전연구』 39,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 2017, 7~39면; 정은진, 「『진휘속고』 해제」, 앞의 2018 책, 12~47면.

5) 진재교, 「조선조 후기 類書와 人物志의 학적 시야·지식·정보의 집적과 분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67~98면.

6) 임완혁, 「『진벌휘고속편』 所載 '道流'편에 대한 일 고찰 : 인용 문헌과의 관계 및 편찬 태도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0, 대동한문학회, 2019, 165~195면; 임완혁, 「『진벌휘고속편』을 통해본 道流의 삶 : '道流'篇의 내용 고찰」, 『한문학보』 41, 우리한문학회, 2019, 425~467면.

7) 임완혁, 앞의 2019(b) 논문, 425면.

지닌다. 이 점에서 이러한 표제어 아래에 배치된 인물의 행적과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흥미할 만한 대목이다. 당대 이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하층민이나 비주류의 정보와 행적을 축약한 것은 조수삼의 『추재기이』가 제시한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더욱이 당대 이념과 가치, 당대의 질서 안이 아닌 밖의 인물 정보를 담아내려는 자체는 시대적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하다.”⁸⁾ 이는 매우 타당하며 예리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기존에 알려진 바 『진별』의 편찬 시기에 근거로 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진별』의 편찬 시기는 1854년부터 1910년 사이, 즉 19세기 말엽으로 추정했다.⁹⁾ 19세기 말에 [亂逆] 편을 설정하고, 홍경래 같은 인물을 다루었기에 당대의 질서 밖을 상상하는 시대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존중하면서 『진별』을 다시 살펴볼 때, 『진별』의 편집 의도와 시대적 의미를 재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진별』은 『추재기이』 『호산외기』 『이향견문록』과 같은 19세기 중인층 지식인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방향의 편집 의도도 아울러 지녔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진별』에 대한 편자 문제, 편찬 시기, 편찬의 의도, 인물지로서의 성격 등을 재탐색해 보기로 한다.

II. 『진별』의 편찬 시기와 시대 의식

『진별』은 『진휘속고』(A) (B)를 재편성하여 7책 41권 41편, 부록 9개 편, 도합 50개의 편에 총 1,009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휘속고』(A)의 18개 편과 『진휘속고』(B)의 7개 편을 수용하여 재편성하고, 여기에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편을 더 확장한 것이다. 현재 발견되지 않았으나 『진휘속고』(C) 또는 『진휘속고』(D)라는 또다른 저본이 있어, 그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후일 『진별』을 재편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휘속고』(A)가 춘하추동의 넷으로 나뉜 중의 한 부분인 ‘夏’ 책이라는 점에서

8) 진재교, 앞의 2018 논문, 92면.

9) 한영규, 앞의 2016 논문, 135면. 『진별』 [名畵] 편에 고람 전기(1825~1854)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1854년 이후로부터 식민지시기 이전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론한 바 있다.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 『진휘속고』(A) (B)와 『진별』의 편차 및 조목에 대한 비교 검토는 한영규, 최수은, 정은진의 기존의 논의에서 상세히 이루어졌다.

『진별』은 인물 조목의 수에 있어서는 『진휘속고』(A)의 501개 조목,¹⁰⁾ 『진휘속고』(B)의 566개 조목을 대상으로 일부 인물을 삭제하고, 거기다 새로운 인물 기록을 추가하여 총 1,009 조목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이향견문록』 입전 인물 308명보다도 더 방대한 규모로서, 19세기 이후에 편찬된 민간 인물지 가운데 가장 방대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진별』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안은 편자와 편찬시기이다. 편자는 현재까지 미상인 채로 남아있는데, ‘尹祖榮印’ ‘愚川’이라는 장서인을 찍은 尹祖榮(1841~1910 이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조영은 자가 仲德, 본관은 파평으로 현감 尹秀東의 아들로 확인된다. 윤조영은 1871년 문과 급제 후, 함경도 안변 도호부사, 평안도 상원군수를 거쳐 병조참의·중추원 의관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소장자 윤조영이 『진별』을 편찬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가 편자인지는 현재로서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진별』에 『기문총화』가 대거 인용되고 있고, 『기문총화』의 편자가 19세기 순조 초년의 노론계 인물인 파평윤씨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추론컨대, 소장자 윤조영과 『기문총화』 및 『진별』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단서가 찾아지지 않는다.

편자 추정이 답보 상태인데 비하여, 『진별』의 편찬 시기는 선행 연구에서 좀더 진척되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진휘속고』(A)와 (B)는 1862년 이전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했다. 『진별』에 실린 가장 후대의 인물은 1854년에 세상을 떠난 [名畫] 편의 「田琦」였다. 그런데 『이향견문록』(1862)에 『진휘속고』를 인용한 양예수·허준 등 14인의 기록을 실었던 바, 이들 14인은 모두 『진휘속고』(A)와 (B)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진휘속고』(A)(B)는 『이향견문록』(1862) 이전에 존재한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진휘속고』(A)(B)를 저본으로 하여 『진별』로 재판성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즉 『진별』은 어느 시대의 산물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는데, 『진휘속고』와 『진별』 사이의 시간 격차가

10) 『진휘속고』(A)에는 모두 756명의 이름이 표제로 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凶逆」 편의 255명은 성명만 열거하고 상세 기록이 없으므로 실제의 인물 기록은 501개 조목이다. 정은진, 「『진휘속고』 해제」, 앞의 2018 책, 19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론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가 새로 확인 된다.

세종조 때의 일이다. 수양대군[세조]의 혼례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창 貞熹王后의 언니와 혼사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監察閔氏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주인되는 부인이 그 처녀를 데리고 나와서 그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정희왕후가 아직 어린 나이로 짧은 옷과 아이의 머리를 하고 주인의 뒤에 숨어서 앉아 있었다. 부인이 그 아이를 방에 들어오게 하였다. 각 씨가 말하기를, “이 아기가 기상이 비범하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고, 그를 본 뒤에는 감탄하여 칭찬하기를 마지않았다. 그리고는 입궐하여 이를 아뢰었는데, 마침내 그 아이와 定禮를 하게 되었다. 이는 실로 하늘이 맺어 준 인연이다. 감찰각씨의 지인지감이 지금까지 칭송되고 있다.¹¹⁾

『진별』 [宮女] 편에 실린 기록으로, 인용문헌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왕실의 혼사를 중개하는 감찰각씨의 존재와 정희왕후 尹氏(1418~1483)의 비범성을 알아본 그의 지인지감에 대해 말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다른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 본래 조선조는 大殿과 東宮의 嬪을 정할 때, 사대부 집 딸의 單子를 거둬 그들을 대궐에 들어오게 하여 선택하였고, 그 외 大君의 아내 이하는 상궁 또는 감찰각씨를 파견해 중매하게 했다. 이런 감찰각씨의 존재는 李璽의 『松窩雜說』에 처음 보이는데, 여기서는 감찰각씨를 ‘監察可氏’라고 기록했다.¹²⁾ 「감찰각씨」 조목은 최수은(2016)의 인용문헌 조사에서 ‘미상’으로 처리됐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유일하게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실려 있다.¹³⁾ 『임하필기』는 1871년에 편찬되었다. 따라서 이 「감찰각씨」 조목

11) 「監察閔氏」, 『震閩彙攷續編』 [宮女] 2-13a, “**世宗朝, 世祖** 吉禮未定, 方議婚於貞熹妃之兄, 監察閔氏至其家, 主夫人, 奉其處子而出與之對坐. 貞熹年尚稚, 短裳童髻, 隱蔽於夫人之座後而觀之. **主夫人推使入室**, 閔氏曰: ‘阿只氣像非凡, 願見之.’ **主夫人許出見閔氏**, 嘉歎不已. **及入內**, 啓其事, 遂與之定禮. **是固天作之合而**閔氏知人之鑑, **至今稱之.**”

12) 李璽, 『松窩雜說』; 『대동야승』,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祖宗朝, 惟大殿及東宮嬪, 則收取士大夫年歲單子, 使之入闕而選擇. 此外, 雖大君之妻, 或令尙宮或令監察可氏, 就其閭閻本家擇而議定.**” 『松窩雜說』 번역 후 해제를 쓴 李翼成은 “감찰각씨의 ‘閔氏’를 ‘可氏’로 표기한 것은 우리 말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익성, 「송와잡설 해제」, 『국역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1971.)

13) 이유원, 『임하필기』 文獻指掌編, 「監察閔氏」; 『국역 임하필기』 3, 민족문화추진회, 1999, 88면.[원

이 『진별』의 1천여 인물 기록 가운데, 현재로서는 가장 후대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진별』은 1871년 이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1871년 이후, 그 하한선에 대해서는 확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진별』의 편찬이 19세기 말을 지나 20세기 초반에 이뤄졌을 수 있다는 한두 가지 단서가 발견된다. 우선, 『진별』 [譯官] 편의 「江南德母」 조목이 최남선의 『시문독본』(1916)에 실려 있다.¹⁴⁾ 즉 진취적인 여성 이야기의 발굴과 편집이 1910년대 초기에 하나의 경향을 형성했는데, 그 흐름과 『진별』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을 수 있다. 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백두용의 『동상기찬』(1918)과 『진별』의 상관성이다. 『동상기찬』은 전반부에 이옥의 「동상기」를 싣고, 후반부에 남녀 및 부부 문제에 관한 흥미로운 야담계 이야기 80개 조목을 뽑아 실었는데, 그 원출처는 『기문총화』 『청구야담』 등 야담집이 주류를 차지한다.¹⁵⁾ 그런데 『진별』 [別室] 편의 「汲水婦」 등 10개 조목이 『동상기찬』에 실려있는 10명의 인물과 일치한다.

이는 우연한 일치이거나 단순한 동시대적 유사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진별』과 『동상기찬』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단서가 보인다. 『진별』 [別室](9칙) 편 「失姓氏」(1)은 통제사 李顯達의 첩이 현명한 재산 관리와 어진 행실로 본부인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인데,¹⁶⁾ 이 기사는 『동상기찬』 권5 보유 편에 「李統制顯達」이란 표제로 실렸다. 표제를 정하는데 있어서 남성을 내세운 『동상기찬』과 「失姓氏」라고 여성을 표면화 시킨 『진별』이 매우 대조적이다. 이 글의 내용은 두 본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기문총화』 『청구야담』 등의 기존 야담집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최수은의 세밀한 고증에서도 이 이야기의 원출처를 찾지 못하여 미상으로 처리했다. 『동상기찬』에 실려 있는 80개 이야기 가운데 현재까지 그 인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모두 6개 조목인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이다.¹⁷⁾ 혹 백두용은 『동상기찬』을

문영인 “光廟, 以首陽大君在潛邸, 吉禮未定. 初以貞熹王后之兄議婚, 監察閻氏至其家, 主夫人, 奉處女而與之對坐. 貞熹王后年尚幼, 短衣童髻, 隱於主夫人之後. 閻氏曰: ‘是阿只, 氣像不凡, 願見之.’ 嘉歎不已. 入闕, 啓之, 遂與定禮. 世稱閻氏知人之鑑.”

- 14) 최남선 편, 『시문독본』, 「강남덕의 모」, 1918; 임상석 역, 『시문독본』, 경인문화사, 2013, 116면.
 15) 김준형, 「실사와 허구, 동상기찬에 나타난 야담인식」,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220~221면.
 16) 「失姓氏」(1), 『진별회고속편』 [別室] 2-16a; 백두용 편저, 김동욱 역, 「통제사 이현달의 처와 첩」, 『국역 동상기찬』, 보고서, 2004, 360~361면.
 17) 김준형, 앞의 2014 논문, 221면.

편집하면서 『진별』의 여성 관련 기록을 참고했던 것은 아닐까? 확정하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 현재로서 분명한 점은 이 이야기가 오직 『진별』과 『동상기찬』에만 전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두 문헌의 선후 관계는 어떠한가? 『진별』이 1918년의 『동상기찬』보다 뒤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요는 『진별』의 인물 기록이 유전되고 전파되어 『동상기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1862년 이전에 편집된 『진휘속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근대 전환기를 전후하여 『진별』로 재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洪景來는 定州 사람이다. 순조 신미년(1811)에 반란을 일으켜 정주를 근거지로 하였다. 巡撫營의 中軍 柳孝源이 토벌 평정하였다.¹⁸⁾

이 「홍경래」 조목은 『진휘속고』(A) [凶逆] 편에 없던 것으로, 『진별』의 편자가 뒤에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기사의 출처는 표기되지 않았다. 『진별』 [亂逆] 편에 홍경래 기사가 실렸다는 것은 이 책의 성격과 편찬 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조선왕조와 반역 수괴를 상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정서적 거리에 있을 때, 이러한 기록을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조수삼의 『추재기이』와 『진별』이 비교되어 논의된 바 있지만, 사실 조수삼은 시 「西寇檣杪」에서 홍경래의 거병은 왕조에 대한 반란이므로 마땅히 진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진별』의 편자에게 홍경래는 반역의 수괴가 아니라, 역대 [亂逆]의 한 사람으로 상대화되어 있다. 따라서 그 편찬 시기 역시 조선 왕조를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진휘속고』 『진별』 사이에는 그 편집의도, 편찬시기에 있어서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추론된다. 따라서 『진휘속고』와 『진별』은 그 편자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즉 두 『진휘속고』의 편목과 일부 기록을 선별하고, 여기에 다른 조목을 증보하여 재구성하면서 그 성격이 다른 층위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洪景來」, 『진별휘고속편』 [亂逆] 7-30a, “洪景來, 定州人. 純祖辛未叛, 據定州. 巡撫中軍柳孝源討平之.”

Ⅲ. 『진별』의 편성방식과 인물 기록의 성격

기존의 선행 연구는 두 『진휘속고』에서 『진별』로 재편되면서 커다란 시간차가 없었으리라는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지니고 출발했다. 그러나 앞서 편찬 시기를 논하며 살펴보았듯이, 두 『진휘속고』와 『진별』 사이에는 1870년대 이후 근대전환기까지의 커다란 시대적 간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두 『진휘속고』에서 『진별』로 재구성되면서 각 편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진별』 41권 50편이 그 편성에서 두 『진휘속고』와 어떤 상관 관계에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권수와 편명 표시 뒤의 ㉠ 표시는 『진휘속고』(A)와 편명이 동일한 경우, ㉡ 표시는 『진휘속고』(B)와 편명이 같은 경우, ■ 표시는 『진별』에서 새로 보이는 편명을 말한다.

| 책수 | 권수 및 편명 | | | | |
|-----|-----------|-----------|----------|----------|-----------|
| I | 1 姓氏 ■ | 2 神童·聰明 ■ | 3 通才 ■ | 4 詩家 ㉠ | 5 名畫 ㉡ |
| | | | | 4-1 筆家 ■ | |
| II | 6 閨英 ■ | 7 烈女 ■ | 8 嬪御 ■ | 9 別室 ■ | 10 娼妓 ㉡ |
| | | | 8-1 宮女 ■ | | |
| | 11 常賤 ■ | 12 婢使 ■ | | | |
| III | 13 道流 ■ | | | | |
| IV | 14 禪家 ㉡ | | | | |
| | 14-1 女僧 ㉡ | | | | |
| | 14-2 居士 ㉡ | | | | |
| | 14-3 巫女 ㉡ | | | | |
| V | 15 音律 ■ | 16 陰陽家 ■ | 17 堪輿 ■ | 18 卜筮 ㉠ | 19 相人 ■ |
| | | | | | 19-1 相馬 ■ |
| | 20 工匠 ㉠ | | | | |

| | | | | | |
|-------|---------|---------|-------|-------|-------|
| VI | 21 忠臣 | 22 孝子 | 23 功臣 | 24 醫術 | 25 譯官 |
| | 26 富人 | 27 宦官 | 28 僮人 | 29 胥吏 | 30 賤人 |
| | | 27-1 宮奴 | | | |
| 31 奴隸 | | | | | |
| VII | 32 才諳 | 33 勇力 | 34 巨量 | 35 貌肖 | 36 形怪 |
| | 37 唱優 | 38 奸巧 | 39 鬼神 | 40 亂逆 | 41 盜賊 |
| | 37-1 談諧 | | | | |

한 눈에 보아도 일반적인 인물지의 분류 방식과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 구성에 있어서 원칙과 위계가 불분명한 비체계성을 보여준다. 『진별』은 두 『진휘속고』의 편명을 약간의 표현만 바꾸고 그대로 수용하고 재편하였다. 따라서 『진별』에 만 새로 보이는 25개의 편명(■ 표시)은 지금은 사라진 『진휘속고』(C)와 (D)의 편구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진휘속고』(A) (B)를 재편성하듯이, 각 편의 조목을 삭제 증감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현재 『진별』은 춘하추동 4책의 『진휘속고』를 저본으로 하여, 재편성해 놓은 형태라고 판단된다. 『진별』의 편목에는 충효열 등 전통적인 분류도 포함되어 있지만, 상인·상마, 공장, 부인, 용력, 거량, 초모, 형괴, 간교, 난역, 도적 등의 편명은 기존의 인물지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분류이다. 용력과 같은 범주라 할 膂力錄은 이규상의 『병세재언록』에 보인다.¹⁹⁾

『진별』은 두 『진휘속고』를 수용·재편성하면서 일정한 체제를 갖추려 하였다. 편목을 재배치하고, 개별 조목을 산삭하고 증보하는 편집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이러한 재구성 과정에서, 다른 인물지와 다르게, 제1권에 총론격에 해당하는 글을 편차해 실었다. 즉 『진별』 41권은 총론 1권과 각론 40권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총론에 해당하는 권의 내용은 우리나라 성씨에 대한 개괄로서, 「東國諸姓」(이덕무), 『성호사설』(이익), 『아희원람』(장훈) 등에 있는 성씨에 관한 기술을 광범하게 인용하여 한 권으로 구성했다. 이는 앞으로 40권 50개의 편목에서 1천여 명의 인물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총론격의 글이 결과적으로 세부 인물 기록과 유기적으로 조응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성씨

19) 이규상 저, 민족문화사 한문화분과 역, 『18세기 조선의 인물지: 병세재언록』, 창작과비평사, 1997, 209~213면.

가 분포한다는 포괄적 지식을 알려주려는 단순한 의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다만, 각 분야별 역대 인물을 거시적이고 일국적인 관점에서 종합해 보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震閥’이라는 명칭 또한 이러한 의도, 즉 우리나라의 역대 인물들을 분야별로 모았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해석된다.

『진취속고』(A) (B)와 『진벌』의 재구성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따져볼 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각 편목의 비중이 재조정 되었다는 점이다. 즉 『진취속고』(A) 18개의 편에 실린 756명에서 『진벌』 18개 편 181명으로 다시 재편성 되었는데, 그 사이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시인에 대한 기록은 대폭 축소되었다. 즉 『진취속고』(A) [詩人] 편의 41인이 『진벌』 [詩家] 편에서는 7명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 『진취속고』(A) | 『진취속고』(B) | 『진벌취고속편』 | 증감 |
|-----------|-----------|----------|------|
| 詩人 (43) | | 詩家 (7) | -36 |
| | 名畫家 (180) | 名畫 (30) | -150 |
| | 閨範 (27) | 閨英 (13) | -14 |
| | 妓 (10) | 娼妓 (11) | +1 |
| | 僧 (218) | 禪家 (125) | -93 |
| | 尼 (7) | 女僧 (5) | -2 |
| | 巫覡 (10) | 巫女 (10) | 0 |
| 卜者 (62) | | 卜筮 (17) | -45 |
| 工匠 (20) | | 工匠 (4) | -16 |
| 忠臣 (45) | | 忠臣 (13) | -32 |
| 孝子 (31) | | 孝子 (10) | -21 |
| 功臣 (13) | | 功臣 (7) | -6 |
| 醫員 (119) | | 醫術 (23) | -96 |
| | 譯官 (104) | 譯官 (63) | -41 |
| 僊人 (4) | | 僊人 (8) | -4 |
| 胥吏 (16) | | 胥吏 (12) | -4 |
| 賤人 (17) | | 賤人 (13) | -4 |
| 私奴 (32) | | 奴隸 (16) | -16 |
| | 勇力家 (10) | 勇力 (11) | +1 |

| | | | |
|---------|--|---------|-----|
| 巨量 (4) | | 巨量 (3) | -1 |
| 肖貌 (4) | | 貌肖 (4) | 0 |
| 形怪 (8) | | 形怪 (7) | -1 |
| 奸人 (6) | | 奸巧 (4) | -2 |
| 鬼神 (50) | | 鬼神 (15) | -35 |
| 凶逆 (6) | | 亂逆 (10) | +4 |
| 盜賊 (2) | | 盜賊 (8) | +6 |

18개 편에서 대다수인 15개 편이 『진별』에서는 축소되어 재조정되었는데, 시인 편은 그 중에서 축소 폭이 심한 경우이다. 반면에 얼굴이 닳은 사람을 기록한 [貌肖] 편은 편명을 [肖貌]로 바꾸었을 뿐, 수록 인물 4명은 그대로 가져왔다. 예외적으로 늘어난 경우로 두 편이 있는데 [僣人] 편은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盜賊] 편은 2명에서 8명으로 증보 재편했다.²⁰⁾ 위의 표에서 보듯, 『진별』은 『진휘속고』를 저본으로 인물 기록을 재편하면서, 전통적 관심사는 축소하고 흥미 있는 주제는 더욱 증보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진별』 편집의 이러한 기조는 『진휘속고』(B)의 재구성에 있어서도 확인되는 양상이다. [閨範] [譯官] 편은 대폭 축소되고, [尼] 편은 [女僧] 편으로 약간 축소되었다. 그 반면 [巫覡] 편은 10인 그대로 변동 없이 수용했으나, [妓] 편에서는 10인을 서술했던 것을 [娼妓]로 편명을 바꾸고 인물 한 명을 더하여 확장시켜 놓았다. [名畫家] 편은 180명이 서술되었던 것을 [名畫]로 줄이고 30명으로 축소시켜 놓긴 했으나, 실제 『진휘속고』(B)의 [名畫家]에는 이름만을 적어 놓거나, 字號 등 간단한 언급에 그친 것이 많았던 탓에 큰 폭의 축소라고 하기 어렵다. 실제 『진별』 [名畫]의 기술에는 안견·강희안·김명국·윤두서·정선·조영석·심사정·최북·임희지·김홍도·이재관·전기 등 역대의 주요 서화가들이 거의 빠짐없이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인이 대폭 축소된 것에 견주어 화가의 경우는 비교적 축소 규모가 적다고 해석된다.

20) 정은진, 『『진휘속고』 해제』, 앞의 2018 책, 19면.

1. 『호산외기』의 전폭 수용과 奇人の 중시

기존 연구에서 『진별』은 『호산외기』에서 20인을 인용하여, 중인층의 동류 의식을 크게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호산외기』는 그후 『이향견문록』과 『일사유사』에도 중요하게 인용되었다. 어느 인물이 인용되고 또 제외되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경우, 『호산외기』를 적극 수용한 세 문헌 사이에 상당히 의미있는 차별성이 확인된다. 조희룡이 창작한 중인층 인물 전기가 그후 어떤 차이를 두고 수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²¹⁾

| 호산외기 | 진취속고A | 진취속고B | 이향견문록 | 진별취고속편 | 일사유사 |
|------|-------------|-------|--------------|-----------|---------|
| 1a | 박태성 [孝子]박태성 | · | (박태성) | [忠臣]朴泰星 | 박태성 |
| 1b | 박수천 [孝子]박수천 | · | (박수천) | · | 박수천 |
| 2 | 김수팽 | · | 김수팽 | [胥吏]김수팽 | [氣節]김수팽 |
| 3 | 유세통 | · | 유세통 | [胥吏]유세통 | [氣節]유세통 |
| 4 | 김신선 | · | 김신선 | [道流]김가기 | [仙術]김가기 |
| 5 | 이상조 | · | (이언진) | [譯官](이언진) | · |
| 6 | 최북 | · | [名畫家]최북 (최북) | [名畫]최북 | (최북) |
| 7 | 이단전 | · | 이단전 | · | 이단전 |
| 8a | 김억 | · | · | [富人]김억 | [雜技]김억 |
| 8b | 임희지 | · | [名畫家]임희지 임희지 | [名畫]임희지 | 임희지 |
| | | | | [音律]임희지 | |
| 9 | 권효자 | · | 권효자 | · | · |
| 10 | 이익성 | · | 이익성 | · | [醫士]이익성 |
| 11 | 김홍도 | · | [名畫家]김홍도 김홍도 | [名畫]김홍도 | 김홍도 |
| 12 | 김종귀 | · | 김종귀 | · | [棋客]김종귀 |
| 13 | 박영석 | · | (박영석) | · | 박영석 |
| 14 | 김석손 | · | 김석손 | · | · |
| 15 | 김완철 [僊人]김완철 | · | 김완철 | [僊人]김완철 | 김완철 |

21) 괄호 () 표시는 표제 인물은 동일하지만 『호산외기』가 아닌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경우이다. 굵은 글씨는 『진별』과 다른 문헌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표시이다.

『진별휘고속편』의 인물 奇譚錄으로서의 성격

| | | | | | | |
|-----|------|---------|----------|-------|----------|---------|
| 16 | 장우벽 | · | · | 장우벽 | [音律]장우벽 | 장우벽 |
| 17 | 김영면 | · | · | 김영면 | · | 김영면 |
| 18 | 박기연 | · | · | 박기연 | · | 박기연 |
| 19 | 조신선 | · | · | (조신선) | [道流]조선 | (조신선) |
| 20 | 엄열부 | · | · | 엄열부 | · | 엄열부 |
| 21 | 김완 | · | · | 김완 | · | [奇才]김완 |
| 22 | 이양필 | · | · | 이양필 | · | [奇才]이양필 |
| 23 | 강치호 | · | · | (강치호) | · | · |
| 24 | 이흥윤 | · | · | 이흥윤 | [胥吏]이흥윤 | · |
| 25 | 천수경 | · | · | 천수경 | · | 천수경 |
| 26 | 장혼 | · | · | (장혼) | · | 詩人[장혼] |
| 27 | 왕한상 | [賤人]왕태 | · | 왕태 | [賤人](王太) | 왕태 |
| 28 | 이동 | · | · | 이동 | · | [醫士]이동 |
| 29 | 김양원 | · | · | 김양원 | · | [氣節]김양원 |
| 30 | 이재관 | · | [名畫家]이재관 | 이재관 | [名畫]이재관 | 이재관 |
| 31 | 유동자 | · | · | · | [神童]유동자 | · |
| 32a | 장오복 | · | · | · | [胥吏]장오복 | 장오복 |
| 32b | 천홍철 | [僣人]천홍철 | · | · | [僣人]천홍철 | 천홍철 |
| 33 | 엄계홍 | · | · | 엄계홍 | · | 엄계홍 |
| 34 | 조수삼 | · | · | 조수삼 | · | 조수삼 |
| 35 | 오창렬 | · | · | 오창렬 | · | [醫士]오창렬 |
| 36 | 신두병 | · | · | 신두병 | [道流]신두병 | [仙術]신두병 |
| 37 | 전기 | · | [名畫家]전기 | 전기 | [名畫]전기 | 전기 |
| 38 | 농산대사 | · | · | · | [禪家]농산대사 | 농산대사 |
| 39 | 박윤목 | [孝子]박윤목 | · | (박윤목) | · | (박윤목) |

『진별』은 『호산외기』의 인물 42인 가운데 20인을 인용하고, 22인은 제외하였다. 우선, 『호산외기』의 권효자, 엄열부 등을 『진별』에서 이어받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천수경·조수삼·오창렬 등 중인층의 대표적 시인들도 수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홍도·이재관·전기 등 화가들은 그대로 수록하고, 거기에 더하여 김수평·

장오복 등의 서리들은 대부분 수용했다. 즉 중인층의 시인·효자·열부는 약화되고 화가·서리·겸인과 기인들이 중시되었다.

『호산외기』의 기록 중 김억·강치호·유동자·장오복·천홍철·농산대사 등 6인은 『이향전문록』에 인용되지 않았다. 이 6인 가운데 김억·장오복·천홍철 등 3인은 여향의 협객이라 할 인물이고, 유동자·농산대사는 신분을 따지기 어려운 당시 시정의 기인들이며, 강치호는 당시 통념에 비추어 특이한 행동을 한 인물이다. 그런데 『진별』은 김억·유동자·장오복·천홍철·농산대사 등 5인을 모두 수용했다. 장지연은 『일사유사』에서 김억 등 협객 3인은 『호산외기』를 그대로 인용했으나, 그 반면 강치호·유동자 등의 기인들은 제외하였다.

그동안 유동자 이야기는 『호산외기』 이후 다른 인물 기록에는 다시 인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²⁾ 「유동자전」은 기발한 발상으로 산수를 유람했던 특출난 아이에 관한 기록이다. 어린 아이가 피를 써서 어른의 등에 업혀 북쪽 지방의 명승지를 다 유람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이 비교적 긴 편폭으로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진별』은 「유동자」를 [神童] 편에 싣고, 그의 기이한 산수 유람 행적을 상세히 서술했다.²³⁾

영조 때의 협객 金櫛을 『진별』의 편자는 [富人] 편으로 재편성하였다. 『진별』에는富有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적지 않다. 8명의 부자에 대한 기록은 『어우야담』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는데, 오직 「김억」은 『호산외기』를 인용하여 새로 증보한 것이다.

김억은 영조 때 사람이다. 공령문을 잘 지어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집은 부자였고 천성이 豪奢하여 聲色の 즐거움을 다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은 흰 옷을 입는데 홀로 색이 있는 비단 옷을 입어 찬란히 빛났다. 칼에 대한 癖이 있어, 칼을 모두 구슬과 자개로 꾸며서 방의 선반에 벌여 걸어 놓았다. 날마다 한 개씩 칼을 바꾸어 샅는데 한 해가 돌아와도 다 차지 못했다. 梨院에서 연습이

22) 한영규, 「중인층 전기집 『호산외기』의 성격과 위상」,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96면.

23) 「劉童」, 『震閩彙攷續編』 [神童] 1-32a, “劉童. 『壺山外史』曰: 劉童, 不知誰家子也. …… 至今稱爲奇童.” 『진별』에는 『호산외기』 「劉童子」 편에 뒤에 붙어 있는 조희룡의 논평은 취하지 않았고, 상당한 자구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있어 教坊의 여러 기녀들이 모두 모이자, 김억이 바로 왔는데, 젊은 무리들이 서로 말하였다. “김억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들과 만나지도 않다, 나라 안의 女樂을 독차지하니 가증스럽다. 그를 욕보이자.” 그리고는 말로써 김억에게 싸움을 걸어왔으나 대꾸하지 않았다. 이에 때리고 옷을 찢어 버렸다. 김억은 한적한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구경을 했는데, 앞서 입었던 옷과 모양새와 색깔이 다를 것이 없었다. 젊은 무리들이 성내어 또 옷을 찢었다. 이와 같이 옷 찢기를 세 번하였고 옷을 갈아 입은 것도 세 번이었다. 그런데도 구경하는 것이 한결같았고 끝내 한 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젊은 무리들이 이에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사과하였다.²⁴⁾

여항의 험객 김억을 「富人」 편에 재배치한 것은 『진별』 편자의 독특한 해석이다. 『일사유사』에서는 김억을 [雜伎] 편에 실었다. 위 조목에서 『진별』 편자는 조희룡의 『호산외기』 「김억·임희지진」을 인용하면서 인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내용의 조정도 가해졌다. 『호산외기』에는 “樂院에 二六肆樂式이 있어서 여러 기녀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김억이 그것을 마음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젊은 무리들이 서로 말하였다.”²⁵⁾고 되어 있는데, 『진별』에서는 “梨院에서 연습이 있어 教坊의 여러 기녀들이 모두 모이자, 김억이 바로 왔는데, 젊은 무리들이 서로 말하였다.”로 고쳐 놓았다. 『진별』의 편자는 「김억」을 부자의 한 사례로 적극 해석하고, 부자 항목에 새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호산외기』를 어떻게 이어받는가의 측면에서 『이향견문록』과 『진별』은 현격히 다른 두 지향으로 나아갔다. 『이향견문록』은 예교적이고 전통적인 측면을 중시한 반면 『진별』은 기문·기담의 측면을 보다 중시했다. 유동자·농산대사 등 기이한 인물들을 포용적으로 수용한 점에서 『진별』이야말로 『호산외기』의 충실한 계승이라고 이를 만하다. 『이향견문록』은 편집의 기초에서 중인층의 정체성을 굳건

24) 「金櫪」, 『震閩彙攷續編』[富人] 6-34a, “金櫪, 英宗時人. 善功令, 中進士. 家富性豪奢, 極聲色之娛. 東人衣白, 而獨衣色錦, 燦如也. 癖於刀, 皆飾以珠貝, 列挂房櫳, 日佩一刀, 周一歲不盡. 梨院肆業, 教坊諸妓皆會, 櫪輒來觀, 群少相謂曰: “金櫪不出門, 不接吾輩, 而但籠國中女樂, 甚可憎, 試辱之.” 始以言挑之, 不答, 乃歐而毀衣, 櫪從閑處, 易衣而觀之, 與向之所服, 製色無參差. 羣少怒, 又掩之, 如是者凡三, 而更衣而不校者亦三, 縱觀如故, 羣少乃愧謝之.”

25) 조희룡, 『호산외기』, 「김억·임희지진」; 조희룡 저, 실시학사 역, 『조희룡전집』 6, 한길아트, 1997, 66면, “樂院有 二六肆樂式, 衆妓如雲, 櫪縱觀之, 群少相謂曰: ……”.]”

하게 견지했다. 반면 『진별』은 중인층 인물을 다수 수용했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중인층의 계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호산외기』에 실린 박수천·박윤묵 등의 중인층 효자는 『이향견문록』과 『진취속고』(A)에 그대로 실렸지만, 『진별』의 편자는 이들 중인층 효자를 대폭 삭제하고 그 대신 유동자 등의 기인을 증보하였다. 『진취속고』(A)에는 최기남·고시언 등의 이름난 여항 시인이 실렸으나, 『진별』로 재편성되면서 이를 제외하였다. 즉 『진취속고』(A)는 중인층에 보다 친화적인 반면 『진별』에는 그 점이 약화되었다. 오히려 천수경·오창렬·조수삼·박윤묵 등 여항의 대표적 문인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사유사』가 『호산외기』 『이향견문록』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그 반면 『진별』은 인물 구성에 있어, 특정 계층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계층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별』에는 서얼층 및 여성 인물 기록의 집성도 이루어졌다. 이 점은 그동안 주목하지 못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2. 서얼·여성의 수용과 계층통합적 구성

『진별』은 『호산외기』를 인용하여 중인서리층 인물의 기담을 대폭 수용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진별』의 편성이 중인층의 계층 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진별』은 인물 편성에서 탈계층적 지향을 지녔다. 이와 관련하여 『진별』이 주요하게 인용하고 있는 문헌에서 새로운 흐름이 간취되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즉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성대중의 『청성잡기』, 성해응의 『초사담헌』,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등이 그것인데, 이들 편자는 모두 서얼 문인이다. 『진별』 첫째 권 [姓氏] 편의 서두는 이덕무가 우리나라 성씨를 개괄한 「東國諸姓」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진별』 전체에서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을 매우 중요하게 활용하였다. 『진별』의 편자는 『필원잡기』 등의 조선 전기 필기를 인용 서로 기재한 경우가 상당한데 이들 필기는 대체로 『연려실기술』에 발췌 수록되고 있어, 편자가 실제로 이공익의 기술에 더 깊이 의존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성해응의 『초사담헌』에는 모두 139명의 인물 기록이 실렸는데, 『진별』에 「論介」「嘉山童」「賣粉嫗」「慶運宮宮人」 등 31인이 인용 수록되었다. 이는 『초사담헌』 전체의 22%에 해당한다. 『초사담헌』에는 기층 인물과 여성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는데, 『진별취고속

편』에서도 기인 기담의 면모가 있는 이들을 다수 수용하였다.

이공익의 『연려실기술』도 『진별』에 중요하게 인용되었다. 『연려실기술』은 述而不作的 서술 원칙에 따라 사실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해석은 거의 하지 않아 객관적인 편찬 태도를 지녔다. 『진별』 편자는 『연려실기술』 본집의 「故事本末」·「相臣」 편과 별집의 「優老」 편 등을 인용하여 『진별』을 재편성했다. 『진별』 [음양가] 편 의 「尹士雄」, [환관] 편 의 「李鳳廷」, [명화] 편 의 「石陽正 靈」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진별』은 이처럼 서얼 문인의 편찬물을 적극 활용했을 뿐 아니라, 서얼 인물을 다수 표제로 삼고 그 인물에 대해 중요하게 기술했다. 즉 [신동] 편 의 魚無迹과 南玉, [도류]의 朴枝華와 申維翰, [음양가] 편 의 李翻身, [堪輿] 편 의 道誥·楊士彦·鄭道傳, [공신] 편 의 李陽生과 盧永孫, [의술] 편 의 安瓚과 柳瑞, [역관] 편 의 曹伸과 鄭和, [귀신] 편 의 成琬 등은 서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魚無迹·安瓚·楊士彦·曹伸 등은 서얼 출신의 대표적 명사들로 서얼의 역사를 기술한 『葵史』에 수록되었다.²⁶⁾ 『진별』은 이들 서얼에 대한 기록을 『용재총화』 『증보 해동이적』 『통문관지』 등에서 선별하여 分門類聚하였다. 南玉을 [신동] 편에 배치하고, 申維翰을 [도류] 편에 귀속시킨 것은 『진별』 편자의 독특한 관점으로 읽힌다. 특히 [귀신] 편에 실린 成琬은 성대중·성해응의 선조인데, 이 이야기는 소설적 성향의 『天倪錄』에서 취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진별』의 편자는 해당 인물이 서얼 출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하려는 의도를 지녔으며, 또한 서얼층의 사회적 억압과 그 통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했다는 점이다.

內醫院의 설치는 오로지 大內를 위한 것이라서 반드시 良醫를 얻어야 그 직을 맡길 수 있다. 舊例에는 그 자리를 채운 자들이 스스로 평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비록 의술에 가장 정통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서얼 출신이라고 하면 배척하였다. 중종 때, 참판 宋麟壽는 조정의 큰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의원 소속 관원은 단지 임금만을 위해 양의를 뽑는 것이니, 어찌 그 신분의 지위를 묻는 것입니까? 게다가 잠관은 모두 하나의 부류로서, 『경국대전』 「내의원」 조목에도 평민이나 서얼을 구분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청컨대 내의원에 서얼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양의의 실력이 있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 조정에

26) 『葵史』, 「葵史賢人錄」, 達西精舍, 1858; 이이화 편, 『조선서얼관계자료집』, 여강출판사, 1985, 255~266면.

서 이를 옳다고 여겨, 예조에 명하여 시행하게 했다.²⁷⁾

이 글은 『진휘』(A) [醫員] 편 120개 조목 중 117번째에 있던 것인데,²⁸⁾ 『진별』의 편자가 재편성하면서, [醫術] 편의 맨 앞에 실어 놓았다. [의술] 편 전체를 규정짓는 하나의 강령으로서 『진별』의 편자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는 조선시대 내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자료인데, 그 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내의원 소속 의원의 선발에서 서얼을 허통하게 된 배경을 참관 송인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위와 같이 『진별』의 편자는 서얼층이 겪는 사회적 차별에 일정한 비판 의식을 지녔으며, 따라서 서얼층에 우호적 관점을 보였다. [婢使] 편의 「논개」는 『초사담헌』에서 취해 온 것인데, 『초사담헌』의 편자 성해응은 논개의 신분을 밝히면서 ‘최경희의 첩’이라 기술했다.²⁹⁾ 그런데 『진별』의 필자는 ‘첩’이라는 글자를 ‘소실’로 바꾸어 놓았다.³⁰⁾ 「梅環」의 경우, 역시 첩이라는 글씨를 소실로 바꾸어 놓았다.³¹⁾ 이 역시 서얼층 인물을 중시하는 편자의 시각으로 해석된다.

『진별』의 [醫術] 편에 실린 23명을 구성하는 기초가 위에 인용한 바의 서얼 허통 논리와 일관되게 관련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규사』와 같이 서얼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진별』을 편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진별』이 기이한 중인층 인물을 개방적 태도로 적극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얼층 인물에 대해서도 역시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조선시대를 통관하여, 서얼과 중인은 경쟁적 성격이 강했을 뿐 화해적 측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진별』에

27) 「內醫院」, 『진별휘고속편』 [醫術] 6-09b, “內醫院之設, 專爲大內, 必得良醫, 可任其責. 舊例, 充其選者, 皆自謂平民, 雖有術業之最精者, 若庶孽則斥之. 中廟時, 宋參判麟壽, 遇朝廷大會, 告曰: ‘內醫衙門, 只爲上躬取其良醫而已, 豈問其地, 況雜官俱是一類, 而『大典』內醫院條, 又無分別平民庶孽之語, 請通庶孽於本院, 以收良醫之技, 朝廷是之, 令禮曹啓准施行.”

28) 김혈조 외 역, 앞의 2018 책, 111~112면.

29) 成海應, 『研經齋全集』 草樹談獻, 「論介」, 한국문집총간 275, 민족문화추진회, 2001, 150면, “論介長水妓, 爲崔慶會妾. …… 至今稱其巖曰義巖.”

30) 「論介」, 『진별휘고속편』 [倡妓] 2-25a, “論介長水妓一云晉州官妓, 爲崔慶會小室. …… 後名其巖曰義巖. 有事蹟碑而旌之.”

31) 「梅環」, 『진별휘고속편』 [倡妓] 2-25a, “梅環, 林慶業之小室. ……”; 成海應, 『研經齋全集』 草樹談獻, 「論介」, 한국문집총간 275, 민족문화추진회, 2001, 170면, “梅環, 林慶業妾也. ……”

서는 중인층과 서얼층 인물이 통합되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계층통합적 시각은 『진별』의 핵심적 특성이라 할 만하다.

『진별』 편자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인물을 매개로 한 奇譚의 파노라마적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서얼이나 중인을 옹호하는 논리의 증거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진별』 제2책에는 열녀·궁녀·창기 등 70여 명의 여성이 실렸는데, 이 역시 奇譚의 주인공으로서의 여성이라는 기조에 따른 편성으로 해석된다. 즉 『진별』 편성의 전반적 흐름은 신분·계층의 국한성을 넘어서며, 다양한 기인 기담이 연출하는 만화경적 모습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즉 人物 奇譚錄으로서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3. 非歷史的 인물의 확대와 新奇의 추구

최수은의 조사에 따르면 『진별』이 1,009조목의 인물 기록을 기술하면서 참고 인용한 문헌은 『어우야담』 『잠곡필담』 등 모두 76종이다. 이 중에는 『脩眉淸史』 등과 같이 편저자와 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헌도 수종 포함되어 있다. 인용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인용이 확인되는 문헌은 『증보 해동이적』(황윤석), 『통문관지』(김지남), 『연려실기술』(이공익), 『草樹談獻』(성해응), 『조선왕조실록』, 『국조인물고』 등 8종이다.³²⁾ 필자가 좀 더 세밀히 조사해 보니 『송천필담』(심재), 『열하일기』(박지원), 『林下筆記』(이유원), 『竹泉集』(李頤命), 『청음집』(김상헌), 『변암집』(채제공), 『玄洲集』(尹新之), 『석북집』(신광수) 등 8종의 문헌의 인용 사례가 새로 확인되었다. 즉 기존에 알려진 『진별』 記載 문헌 76종, 기재하지 않은 실제 인용문헌 8종에 더하여 새로 확인한 8종을 포함하면, 총 92종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 이는 『이향견문록』 『일사유사』 등에 견주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두 『진휘속고』가 다양한 문헌을 참고한 데다, 『진별』의 편자가 그 방식을 계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별』의 편자는 『진휘속고』를 저본으로 하면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재편집했기 때문에 그 편집의 기조가 확연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박지원의

32) 최수은, 앞의 2016 논문, 부록1 『진별휘고속편』에 기재된 인용서 목록, 93면.

그림과 글씨에 대한 비평문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 대표적 예이다.

박지원은 호가 연암이다. 古文詞에 있어서 才思가 넘쳐 고금에 뛰어났다. 때 때로 平遠山水圖를 그렸는데, 疏散하고 아득한 느낌을 주는 것이 송나라 米芾의 수준에 도달하고도 남았다. 그가 쓴 행서와 작은 해서 글씨 가운데 득의작 같은 것은 뛰어난 자태가 넘쳐나, 너무도 기묘하여 그에 비할 작품이 없다.³³⁾

『진취속고』(B) [名畫家] 편에 실린 박지원의 그림과 글씨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다. 그런데 『진벌』 [名畫] 편에서는 뽑지 않았다. 이 글의 원 작성자는 이덕무인데, 박지원이 서화에 능했을 뿐 아니라 시에도 뛰어났다는 사실까지 아울러 기록하여, 연암의 다재다능을 함축적으로 드러냈다.³⁴⁾ 『진벌』의 편자가 박지원 항목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 奇譚에 관심이 많은 편자의 시각에서 배제된 것일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박지원 항목은 삭제되고 임희수·정선·조영석 조목은 『진벌』 [명화] 편에 실렸다. 우연과 착간에 의해 빠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벌』의 편자가 박지원의 서화에 대해 혹은 이덕무의 비평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호감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역시 민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로 선발하려는 편집 의도가 관철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두 편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박지원을 제외한 것과는 달리 기담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화가 이야기는 『진취속고』(B)에서 『진벌』로 계승되었다.

任希壽는 승지였던 忠烈公 任瑋의 아들이다. 어렸을 때의 字는 芾男인데, 나이 겨우 17세에 죽었다. 미목이 수려하여 마치 여자 같았다. 일찍부터 문예에 능하였으며 그림에는 더욱 신묘한 재주가 있었다. …… 표암 강세황이 자화상을 그렸는데, 여러 번 그렸지만 모두 만족하지 못하여 임희수에게 가지고 갔

33) 「朴趾源, 『震彙續攷』(B) [名畫家]; 『張志淵全書』 2, 단국대학교출판부, 1979, 10면, “朴趾源, 號燕巖, 爲古文詞, 才思溢發, 橫絕古今. 時作平遠山水, 踈散迷迴, 優入大米之室. 其行書小楷得意作, 逸態橫生, 奇奇恠恠, 不可方物.”

34) 李德懋, 『靑莊館全書』, 「淸脾錄」 ‘燕巖’, 한국문집총간 258, 민족문화추진회, 1999, 48면, “燕巖, 爲古文詞, 才思溢發 …… 嘗有詩曰: ‘水碧沙明島嶼孤, 鷓鴣身世一塵無.’ 亦知其詩品入妙, 但矜慎不出, 如包龍圖之笑比河清, 不得多見, 同人慨恨, 嘗贈我五言古詩, 論文章, 頗宏肆可觀.”

다. 임희수가 광대뼈 사이에 몇 번 加筆을 하니, 강세황의 실물과 아주 비슷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크게 탄복하였다. 洗馬인 元繼孫이 일찍이 말했다. “李彦瑱의 시와 임희수의 그림은 근세의 제일이다.”³⁵⁾

이 대목은 『진휘속고』(B)에 있던 것을 가져왔는데,³⁶⁾ 원출처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조사 결과, 이덕무의 기록이다. 어떤 사정인지 불확실하나, 『진휘속고』와 『진별』은 둘 다 이덕무·이규경의 기록을 빈번히 인용했다. 이덕무 집안과 『진별』 편자간에 어떤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덕무는 위 대목을 기록해 놓고 맨 마지막에 “아! 이언진 역시 27세에 죽었으니, 재주란 매우 상스럽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더 붙여놓았다.³⁷⁾ 즉 이덕무는 요절한 두 천재 예술가 임희수와 이언진을 함께 서술해 놓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놓았다. 사실 이덕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본의는 재능 있는 시인과 화가가 지닌 운명적 비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휘속고』(B)의 편자는 화가 임희수에 관한 사실만을 잘라 취했고, 『진별』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다. 즉 두 문헌 모두 요절한 천재 화가가 주는 기인 기담적 측면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덕무의 글이 널리 알려진 데 반하여, 검재 정선과 관아재 조영석의 그림에 대한 비평³⁸⁾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먼저 『진휘속고』(B)에 실리고 『진별』이 그대로 이어 받았는데, 선행 연구에서도 이 회화 비평의 원출처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松泉의 畫評에서 말했다.”는 부분을 단서로 다시 추적해 보면 이는 심재의 『송천필담』에서 취해 온 것이다.³⁹⁾ 정선의 산수화는

35) 「任希壽, 『진별휘고속편』 [名畫] 1-45b, “任希壽, 故承旨忠烈公璋之子也. 小字芾男, 年十七夭. 眉目娟秀如婦人, 文藝夙就, 畫尤通神. …… 姜豹菴, 自寫其真, 屢易本不稱意, 乃就希壽, 希壽於顰頰間, 略加數筆, 絕似之, 姜大歎服. 元洗馬繼孫, 嘗言‘李彦瑱之詩, 任希壽之畫, 可謂近世第一’云.”

36) 「任希壽, 『震彙續攷』(B); 『張志淵全書』 2, 단국대학교출판부, 1979, 10면.

37) 李德懋, 『靑莊館全書』, 「耳目口心書」, 한국문집총간 258, 민족문화추진회, 1999, 401면, “任希壽, 故承旨瑋子也. …… 噫, 彦瑱亦二十七死, 才固不祥也, 甚矣!”

38) 「鄭澈, 『진별휘고속편』 [名畫] 1-45a, “鄭澈, 字元伯, 號謙齋, 官止僉正. 嘗述『圖說經解』等書. 松泉畫評曰: ‘謙齋山水, 健壯雄渾, 浩汗淋漓, 如昌黎之文.’ 年八十餘, 眼掛數重眼鏡, 燭下作細畫, 不作毫髮.”; 「趙榮祐, 『진별휘고속편』 [名畫] 1-45a, “自宗甫, 號觀我齋, 官止都正. 善畫人物, 畫格精妙. 松泉畫評曰: ‘觀我齋人物, 巉巖列露, 瀟灑縹緲, 如柳州之文.’”

39) 심재 저, 신익철 외 역, 「그림과 글씨의 요체」, 『역주 송천필담』 2, 보고사, 2009, 397면.

한유의 문장과 닮았고, 조영석의 인물화는 유종원의 문장과 비슷하다는 이 흥미로운 비평을 두 편자가 공히 존중하며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의 문헌에 대한 광박한 지식 하나하나가 쌓여, 기담 인물지라는 느슨한 형식에 종합되는 모습이다.

이순신의 경우, 『진취속고』(A)의 기록을 『진벌』에서 그대로 수용한 사례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자신의 생각으로 거북선을 만들어 이로써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다. 대개 그 방법은 선상에 거북 등껍질 같은 판을 깔았고, 위에 열십자 모양의 좁은 길을 두어 아군이 통행할 수 있게 했다. 길 외에는 모두 칼 송곳을 열 지어 꽂았다. 앞은 용머리를 만들어 입에 총 구멍을 만들고, 뒤는 거북이 꼬리를 만들어 꼬리 아래에 총 구멍을 두었다. 좌우에 각각 총 구멍 여섯 개를 두었고, 병사들을 그 아래에 숨기고 사방으로 발포해 종횡으로 나아가고 물러남에 빠르기가 나는 것 같았다. 전시에는 띠 풀을 엮어 덮어서 칼과 송곳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적이 배위로 넘어 오르면 칼과 송곳에 찢리게 했다. 포위당하면 화총이 일제히 발사되며 적의 배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니, 아군은 손상될 이 없었고, 거북선이 향하는 곳에서는 적들이 줄줄이 쓰러졌다.⁴⁰⁾

『진취속고』(A) [工匠] 편에는 22개 조목이 있고, 『진벌』 [工匠] 편에서는 이를 4명으로 대폭 줄여 재편성했는데, 두 문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순신 이야기이다. 이 조목은 인용처를 밝히고 있지 않는데, 『이충무공전서』 「行錄」에 보인다. 또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5월 1일자 기사와도 유사하다. 무엇보다 이순신을 충용과 무공이 아닌 工匠으로 보는 관점이 주목된다. 『진벌』의 편자는 이 기사를 [忠臣] [功臣] 편에 재배치하지도 않았다. 1862년 이전의 『진취속고』(A)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다. 신채호가 소설 「이순신전」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시기는 1908년 5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로, 원제는 ‘水軍第一偉人’이었다. 『진벌』에서는 이순신이 민족사의 위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진벌』의 시대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바, 이 문헌이 근대전환기 혹은 애국계몽기의 민족주의적 시각과는

40) 「李忠武舜臣」, 『진벌회고속편』 [工匠] 5-43a, “李忠武舜臣, 以意肋造龜船, 以此常勝. 蓋其製, 船上鋪板如龜背, 上有十字細路, 容我人通行, 餘皆列插刀錐, 前作龍頭口爲銃穴, 後爲龜尾, 尾下有銃穴, 左右各有銃穴六, 藏兵其底, 四面發砲, 進退縱橫, 捷疾如飛. 戰時覆以編茅, 使錐刀不露, 賊超登則陷于刀錐. 掩圍則火銃齊發, 橫行賊船中, 我軍無所損, 而所向披靡.”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순신의 거북선 제작을 뛰어난 [工匠]의 한 사례로 인식하는 시대성인 것이다. 즉 『진별』은 1870년대 이후의 조선 왕조기 해체기로부터 애국계몽기 이전의 시대성을 보여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진별』에는 이순신·정선 같은 역사적 인물과 北峽魁賊·失姓氏 같은 무명의 비 역사적 인물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잡박한 인물 모음집이었던 『진취속고』를 저본으로 한 데에서 기인하는 특성이다. 그런데 『진별』의 편자는 재판성 과정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었을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진취속고』에 없던 항목을 『진별』에서 어떻게 증보하여 재판성하였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그 적절한 예로 [도적] 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진취속고』(A)에서 『진별』로 재판성 되면서 가장 확장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 편명 | 『진별』 표제 | 인용문헌 표기 | 실제 인용처 | 『진취속고』(A) 수록 여부 |
|-----|---------|---------|--------------------------------------|-----------------|
| 盜賊 | 北峽魁賊 | | 『記聞叢話』 201 | |
| | 峽裡義賊 | | 『기문총화』 307; 『청구야담』 228 「賊魁中宵擲長劍」 | 『진취속고』(A) |
| | 太白樵夫 | | 『기문총화』 255; 『청구야담』 057 「林將軍山中遇綠林」 | |
| | 金進士 | | 『기문총화』 206 | |
| | 還銀漢 | | 『청구야담』 164 「還金囊強盜化良民」 | |
| | 白居易 | 『潛谷隨筆』 | 『潛谷筆譚』 | |
| | 金義童 | | 『어우야담』 「人倫」 | |
| 熊皮盜 | 『潛谷筆譚』 | 『잠곡필담』 | 『진취속고』(A) | |

『진취속고』(A)의 [盜賊] 편에는 2명이 실렸는데, 『진별』 [도적] 편에서 8명으로 확장되었다. 즉 「峽裡義賊」 「熊皮盜」 등 두 조목만 있던 것을 『진별』에서는 이 두 조목을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에 더하여, 여섯 조목의 도둑 이야기를 더 선발하였다. 『진별』 편자는 어디에서 도둑에 대한 기록을 찾아 증보했던 것인가? 위의 표에서 보듯 『潛谷筆譚』 같은 필기, 『於于野談』 『기문총화』 『청구야담』 류의 한문단편소설 등을 인용하여 [도적] 편을 확장 재판성했다. 즉 『기문총화』에서 「北峽魁賊」 「太白樵

夫」 「金進士」를 새로 뽑았으며, 「還銀漢」은 『청구야담』에서, 그리고 「白居易」는 다시 『잠곡필담』에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金義童」을 『어우야담』에서 뽑아 「도적」 편의 8개 조목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들 도둑 이야기는 소설적 수식이 가해져 그 분량과 편폭도 다른 인물 기록과 비해 매우 광대한 편폭으로 되어 있다. 마치 야담집의 도적 편을 옮겨온 듯한 모습이다.

표제의 도적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실명은 ‘백거추’라는 도둑 한 명 뿐이고, ‘김진사’처럼 이름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북쪽 산의 도적 괴수’ 같은 편의적인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입격정’ 같은 역사 인물이 아니라, 소설적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다. 즉 『진별』은 인물지라는 틀에 야담 이야기 속의 인물을 담아내는 특이한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향견문록』에서 『청구야담』의 열여섯 이야기를 인용한 전례가 있는데, 이를 보다 확장시킨 형태이다. 『진별』의 편자는 이들 도둑이 펼치는 奇譚에 관심을 가졌던 듯하다. 즉 이는 민간에서 널리 회자되는 흥미로운 도둑 이야기를 다채롭게 보여주려는 편성 의도를 지녔고, [도적] 편에서 그 의도가 극대화되어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진별』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는 [道流] [禪家] 편과 연관지어 해석한다면, 민간 인물이 보여주는 역동적 奇異性에 편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하겠다. 『호산외기』를 대표하는 민간의 기이한 이야기 「유동자」를 『이향견문록』이나 『일사유사』가 선택하지 않는데 반해, 오직 『진별』이 [신동] 편으로 수용한 것 역시 이러한 奇聞 奇譚에 대한 편자의 관심의 반영이다. 충효열 등 전래의 도덕·교훈을 지양하고 민간의 인물 기담이 전달하는 흥미와 新奇를 중시했다는 점은 『진별』의 성격과 그 시대성을 논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선 후기 이래 부상하는 민간 혹은 시정의 역동성은 다양한 형태로 문헌에 수렴되었다. 「한양가」 『추재기이』 등이나 『호산외기』 『이향견문록』 『일사유사』 같은 인물 기록으로 나타났다. 『진별』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고 하겠다. 다만, 『진별』은 그 인물 구성에 있어서 이전보다 탈계층적 종합성을 보이며, 편집의 지향에서는 보다 기이한 이야기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통속적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마지막 제7책에 富人·才諳·勇力·巨量·貌肖·形怪·唱優·談諧·奸巧·鬼神·亂逆·盜賊 편에 奇譚의 통속성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편성해 놓았다. 이 가운데 富人·才諳·唱優·談諧 편은 『진취속고』(A)(B)에 없던 편명으로, 추론컨대 지금은 사라진 『진취속고』(C)와 (D)에 있던 것을 『진별』에서 그 편목은 그대로 두고 항목을 재편성 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도적] 편에서 보듯 항목의 삭제와 증보는

상당히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재편성의 결과 특히 『진별』의 제7책에는 그 이전의 인물지에서 볼 수 없었던 민간의 기담이 채록되어 실려 있다. [唱優] 편에 실린 광대 朴男과⁴¹⁾ 사당패 두목 某甲의 이야기⁴²⁾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흥미를 중시하며 민간의 기담을 모으면서도 『진별』이 지킨 중요한 원칙은 모두 이전 문헌에 근거한 이야기를 모은다는 것이다. 자연히 기담이 실린 역대의 모든 문헌이 활용되었다. 앞의 『송천필담』의 예에서 확인했듯이, 『진취속고』 편자가 지닌 광범한 문헌 활용 능력은 『진별』에서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진별』의 편자는 특히 『어우야담』 『잠곡필담』 『청구야담』 『기문총화』과 같은 필기·야담의 인물 기록을 존중하여 대거 인용했다. 야담에 기록된 인물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행적들, 즉 이러한 비역사적 성격의 인물 기록을 『진별』은 『진취속고』보다 한층 확장시켰다. 그러므로 『진별』은 특이한 형태의, 야담을 융해시킨 변종 인물지, 혹은 혼종 인물지이다. 문제는 『진별』에 어떠한 이념이나 지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체계와 조리도 갖추지 않은 채, 광범한 역대 문헌을 활용해 다양한 부류의 인간 모습을 모자이크적으로 모아 놓았다는 것이다. 즉 인물 기담록적 관점이라 할 만하다. 이 관점에서 활용된 문헌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김육의 『잠곡필담』이다.

靑坡의 선비 李雲衍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授이고, 어릴 때의 이름은 介였다. …… 그가 죽은 지 한 해가 되는 날이 돌아오자, 李授가 그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저는 모월 모일에 죽었으니, 오늘이 小祥 날입니다.” 꿈에 알려준 이수의 소상 날이 되었는데, 그의 집안 사람에게 공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제가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 오늘 집으로 돌아갈 테니,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머니와 형이 놀라 일어나 자세히 들어 보니, 이수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이 이숙해지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나가 보니, 검정 개 한 마리가 거기 서 있었다. 그 개는 대청으로 올라가더니 어머니를 안고

41) 「朴男」, 『진별』 [唱優] 7-14b, “朴男, 優人也. 一卿宰家子弟登科設宴, 金清陰亦在座, 陳戲百端, 一不顧見. 優人朴男, 具巾服乃卷一張紙, 雙擎徐步而進高聲呼曰: “生員臣李貴, 誠惶誠恐, 頓首頓首, 百拜上言于主上殿下.” 滿座絕倒. 清陰亦不覺失笑.”

42) 「優人某甲」, 『진별』 [唱優] 7-15a, “優人某甲, 以名唱擅一時. 聞申石北光洙詩名, 及其小科, 自願從之. 屢月遊街, 及辭歸, 乞賞給. 申謝以貧無可與. 優呈所把扇, 乞賜一詩以代之. 申卽題曰: …… 洛陽三月杏花翻. 羽調靈山當世稀. 四十二年新進士, 洛陽三月杏花翻.”

는 구슬프게 우짚었다. 이어 그 형에게 다가가 그렇게 똑같이 하였다.⁴³⁾

『진취속고』(A)의 [귀신] 편에는 없던 이야기인데, 『진벌』을 편찬하며 새로 증보한 조목이다. 이수의 어릴 적 이름이 썩었다고 밝히는 것이 마치 소설의 복선처럼 느껴진다. 이야기는 주인공 이수는 병자호란 때 포로로 청나라 심양으로 잡혀간 인물이다. 집으로 돌아오려 해도 속량할 돈이 없어 애태우던 중, 소현세자의 처소에 가 公贖해 주기를 탄원했는데, 세자가 그 상소문을 보고 은을 내주어 몸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중병에 걸려 애석하게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 원한으로 검정 개로 환생하여 고향집을 다시 찾아왔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본래 김육의 『잠곡필담』에 표제 없이 실려있는데,⁴⁴⁾ 『진벌』은 이를 그대로 가져오고 「李授」라는 표제를 붙여 놓았다.

『진벌』의 편자는 『진취속고』(A) [귀신] 편 49개 조목에서 신숙주·성완 등 14개 조목만을 선별하고, 다시 『잠곡필담』에서 이 「李授」 이야기를 새로 뽑아 총 15개 조목으로 [귀신] 편을 재구성하였다. 즉 [귀신] 편에서 유일하게 새로 넣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유일한 이야기를 김육의 『잠곡필담』에서 선택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잠곡필담』에 대한 예외적 증시는 『진취속고』에서도 보이는데, 『진벌』에서는 더 많은 기담을 『잠곡필담』에서 뽑아 증보해 놓았다. 즉 즉 [鬼神] 편의 「李授」「李哲宏」, [盜賊] 편의 「白居秋」 조목이 새롭게 증보되었다. 요컨대 『진벌』은 기존의 『진취속고』를 재편성하면서 『어우야담』 『증보 해동이적』 『청구야담』 『기문총화』와 『잠곡필담』 등을 적극 활용했다. 『잠곡필담』은 『대동야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거의 인용되지 않았다. 이 문헌은 잠곡이 세상을 떠날 당시 그의 집안에 보관 중이었고,⁴⁵⁾ 그뒤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김육 사후 이 문헌은 다른

43) 「李授」, 『진벌』 [鬼神] 7-25b, “李授, 靑坡士人李雲衍之子曰授, 小字介. …… 將及期年, 授夢見於其母曰: ‘子以某月某日死. 以此日爲小祥.’ 及其期, 其家人, 忽聞空中有聲曰: ‘吾化爲異物, 今日還家, 勿怪也. 其母及兄, 驚起聽之, 則乃授之語音也. 夜深, 門外有剝啄聲, 出而見之, 則乃黑雌狗也. 趨入上堂, 抱其母而悲啼. 次詣其兄, 亦如之. …… ”

44) 김육, 『잠곡전집』, 「잠곡필담」,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5, 397면.

45) 趙綱, 『龍洲遺稿』, 「領議政潛谷金公墓誌銘 并序」, 한국문집총간 90, 민족문화추진회, 1999, 256면, “所著詩文約十卷 …… 『種德新編』 『海東名臣錄』 『己卯錄』 『松都志』 刊行于世, 『故事增刪』 『潛谷筆譚』 藏于家.”

문인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이덕무, 유중림(『증보 산림경제』) 등이 한두 조목을 인용하다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집중적으로 인용했다.⁴⁶⁾ 그런데 이덕무·유중림·이규경은 모두 서얼 문인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들 서얼 문인과 『진별』 편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진별』의 소장자 윤조영이 이들 서얼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진별』의 편자는 이규경, 이덕무·이규경, 성대중·성해응 등 역대의 전고와 문헌에 박학했던 서얼 가문의 學知 네트워크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진별』은 널리 알려진 문헌은 물론이고 『잡곡필담』 등 기존에 인용된 바 없었던 각종의 필기·야담·한문단편 등을 최대한 활용해 특이한 奇譚을 발굴하고, 비역사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놓았다. 이는 이미 『이향견문록』에서 『청구야담』 등을 인용하며 활용했던 방식인데, 『진별』은 인용문헌의 방대함, 수록 인물의 다양성, 奇譚의 다면적 성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진별』은 1870년대 이후 계층통합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민간에서 발원한 각양 각종의 기담을 통속적 관심까지 포용하며 집성했다는 성격을 지녔다.

IV. 맺음말

앞에서 논의한 바 『진별』은 『이향견문록』 등 19세기의 인물 기록 모음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면모를 지녔다. 『진별』은 1천여 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중인층과 서얼층, 그리고 기층민과 여성들을 포괄적으로 집성해 놓았다. 다양한 계층, 다채로운 인물의 망라라는 점에서 독특한 인물 집성이라 칭할 만하다. 그리하여 기존의 정사나 인물지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無名의 인물들이 새로 부각되어 있어, 특이한 형태의 ‘잡록형 인물지’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그러나 『진별』은 여전히 1차적인 인물 자료 모음집에 머물며, 고유한 시각의 편찬물에는 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진별』은 이 책을 어떤 방향으로 편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편집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또한 分門과 類聚에 있어서도 체계성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46)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 147~149면.

편의적인 分門에 따른 개별 인물자료의 隨得隨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진별』은 『진휘속고』의 재구성본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면모를 보여준다. 첫째, 계층적·시대적 국한성을 넘어서는 통합적이며 통사적인 인물 기록 집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편성이 정교하거나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진별』은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을 일국적 시야에서 分門하고 그에 따라 類聚한 결과물이다. 중인층 중심의 『호산외기』 『이향견문록』, 서얼 만을 대상으로 한 『규사』 등과는 현격히 다른 측면이다. 그 점에서 『진별』은 저본 『진휘속고』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재편성 과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일국적 규모의 인물 편성을 보여준다. 둘째, 외형적으로 상하층 통합적이면서도 실제 내용에서는 서얼·중인·여성·常賤 등에 특별히 비중을 두어 인물을 편차했다는 점이다. 이는 역동적 민간 기원의 기담의 중시라는 조선왕조 해체기의 시대성과 연관되는 문제이다. 셋째, 정사 및 관찬서 뿐 아니라 필기·유서·야담·한문단편소설 등을 대거 동원하여 비역사적 인물들까지 포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인물 奇譚의 흥미성을 보다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인물 집성에 있어서 『진별』 편성이 보여주는 이러한 탈계층적 면모는 미증유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918년에 편집된 『일사유사』가 여전히 전근대적 가치와 분류 체계에 매몰되어 장지연 당대의 시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진별』은 왕조 해체기 민간의 역동성이라는 시대상의 한 부면을 담아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진별』에는 1871년 이후부터 애국계몽기 사이의 왕조 해체기의 시대 의식이 담겼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 『진별』이 “당대 이념과 가치, 당대의 질서 안이 아닌 밖의 인물 정보를 담아내려는 자체는 시대적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은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진별』이 집성한 민간 인물 기담의 역동성은 19세기의 시정성과 연결되면서도, 보다 일국적이고 계층통합적인 시각을 보인다는 점에서 거리가 있다. 『진별』에는 왕조적 시대의식보다는 조선왕조 해체기 또는 근대 전환기의 시대의식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거기에 인물 기담록으로서의 흥미성을 중시하는 편집 의도를 지녔기 때문에, 필기·야담·한문단편 등의 다양한 장르가 포용되고, 계층적으로 상층의 인물보다는 서얼·중서층·여성 및 기층의 인물에 비중이 보다 두어졌던 것이다.

투고일: 2020.07.30

심사일: 2020.08.25

게재확정일: 2020.09.07

참고문헌

- 김육, 「잡곡필담」, 『잡곡전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5
- 김철조 외 역, 『스스로 역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 : 진휘속고』, 영남대학교출판부, 2018
- 백두용 편, 『동상기찬』, 한남서림, 1918
- 백두용 편, 김동욱 역, 『국역 동상기찬』, 보고서, 2004
- 成海應, 『研經齋全集』, 한국문집총간 275, 민족문화추진회, 2001
- 申光洙, 『石北集』, 한국문집총간 231, 민족문화추진회, 1999
- 심재 저, 신익철 외 역, 『여주 송천필담』, 보고서, 2009
- 이규상 저, 민족문화사 한문학분과 역, 『18세기 조선의 인물지: 병세재언록』, 창작과비평사, 1997
- 李璧, 『松窩雜說』; 『대동야승』,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 이유원 저, 홍승균 역, 『국역 임하필기』 3, 민족문화추진회, 1999
- 장지연 편, 『逸士遺事』, 『여향문학총서』 9, 여강출판사, 1991
- 趙綱, 『龍洲遺稿』, 한국문집총간 90, 민족문화추진회, 1999
- 최남선, 『시문독본』, 1916. ; 임상석 역, 『시문독본』, 경인문화사, 2013
- 편자미상, 『震巢續攷』(A) ; 임형택 편, 『이조후기 여향문학총서』 9, 여강출판사, 1991
- 편자미상, 『震巢續攷』(B) ; 『張志淵全書』 2, 단국대학교출판부, 1979
- 편자미상, 『葵史』, 達西精舍, 1858. ; 이이화 편, 『조선서얼관계자료집』, 여강출판사, 1985
- 편자미상, 『震閣彙攷續編』, 일본 동경대학교 도서관 阿川文庫 소장본
- 강명관, 「진휘속고 해제」, 『이조후기 여향문학총서』 9, 여강출판사, 1991
- 김준형, 「실사와 허구, 동상기찬에 나타난 야담인식」,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익성, 「송와잡설 해제」, 『국역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1971
- 임완희, 「『진별휘고속편』 소재 '道流'편에 대한 일고찰 : 인용 문헌과의 관계 및 편찬 태도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0, 대동한문학회, 2019
- 임완희, 「『진별휘고속편』을 통해본 道流의 삶 : '道流'편의 내용 고찰」, 『한문학보』 41, 우리한문학회, 2019
- 정은진, 「고려대 육당문고본 『진휘속고』 고찰」, 『태동고전연구』 39,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 2017
- 정은진, 「『진휘속고』 해제」, 『스스로 역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 : (역주) 진휘속고』, 영남대학교출판부, 2018
- 진재교, 「조선조 후기 類書와 人物志의 學的 視野-지식·정보의 集積과 分類를 중심으로」, 『대

동문화연구』 10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최수은, 「신발굴 인물지 『진벌휘고속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한영규, 「잡록형 인물지 『진벌휘고속편』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55. 한민족문화학회, 2016

한영규, 「증인층 전기집 ‘호산외기’의 성격과 위상」,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A Study on the Editing Methods of Jin Beol Hwi Go Sokpyeon

Han, Young-gyu

This paper is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character of the newly discovered book Jin Beol Hwi Go Sokpyeon. Jin Beol contains a vast record of more than 1,000 people, ranging from the upper to the middle, to the women and the lower class. This book is a unique collection of people's records in that i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diverse characters from various walks of life, using a vast collection of existing literature. The book does not clearly state the editor, the timing of the compilation, and the intent of the editing. However, Jin Beol has importa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existing person record in three ways First, in that the characters in this book are not limited to a particular class, nor are they confined to a particular era, it has an integrated character. Second, although the upper and lower classes were gathered in appearance, the actual contents gave a higher weight to the middle class, women and the lower class. Third, this book selected non-historical characters by utilizing not only political history and official praise books, but also Yadam and Chinese short stories. And it highlighted the interesting stories of these characters. The interest in such a de-hierarchical and de-historical figure is a new aspect that has never been seen before.

Key Words : Jin Beol Hwi Go Sokpyeon, Jin Hwi Sok go, Ho San Oe Gi, miscellany type book of figures, a strange and interesting story, a collection of bizarre and interesting stories about characters, the 19th century, modern transition period

